

기술 국산화·인재 양성... 목포신항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

한전KPS·목포대 등 '풍력교육훈련센터 및 정비 shop' 구축 협약 유지보수 인력 양성·글로벌 수준 교육과정 개발·정비센터 구축 등

목포시가 목포신항 해상풍력 생태계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목포시는 한전KPS, KMC해운, 국립목포대학교와 함께 목포신항 내 '풍력교육훈련센터 및 정비 shop'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유지관리 서비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풍력 분야 핵심기술의 국산화와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

한 상호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풍력 유지보수 인력 양성 클러스터 조성 및 기술지원 ▲글로벌 수준의 풍력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전문교육 수료생 취업 지원 ▲풍력 정비 shop service 센터 구축 ▲풍력산업 기술표준화, 인증 및 연구개발(R&D)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교육센터 구축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담당하고, 한전KPS는 교육장 건립

과 교육과정 운영을 총괄한다. 또 KMC해운은 15MW급 나셀과 교보재를 제공해 현장 중심의 실습 인프라를 구축하며, 목포대는 우수교육생을 모집·선발해 지역 인재 양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현장 실무역량을 갖춘 해상풍력 전문 인력을 지속해서 양성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목포시가 해상풍력 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지난 19일 목포시장 권한대행 조석훈 부시장, 김원이 국회의원, 한전KPS 김흥연 사장, KMC해운 김중훈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플랫폼센터에서 '목포신항 풍력교육훈련센터 및 정비shop'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목포시 제공>

겨울 바람 뚫고 '봄의 요정' 활짝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복수초·변산바람꽃 등 잇따라 개화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보영)가 고흥군 봉래산, 완도군 정도리구계 등 일원에서 봄의 전령사인 길가가지나무꽃, 복수초, 변산바람꽃(사진)이 잇따라 개화해 본격적인 봄이 왔음을 알렸다. 올해 봄꽃 개화가 전년 대비 약 7-8일 빠른 개화가 확인되는데 이는 2월 평균기온 상승과 일조

시간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앞으로 탐방로 인근 숲과 계곡 주변에서 다양한 봄꽃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초는 추위를 이기며 꽃을 피울 정도로 생명력이 강해 북과 장수를 비는 이름으로 지어졌고, 길가가지나무는 이른 봄 잎보다 먼저 노란 종모양의 꽃을 피우며 은은한 향을 탐방로에 뿌리

고, 변산바람꽃은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변산반도에서 처음 발견돼 이름이 붙여졌다. 운솔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장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전하는 봄소식과 함께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란다"라며 "사진 촬영이나 관찰 시에는 탐방로를 벗어나지 않고, 꽃을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 소외이웃에 공연·전시·여행 '문화 향유' 기회

통합문화이용권 연간 1인 최대 16만원... 지난해 발급자 자동 재충전

해남군이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6년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연간 1인당 15만원(일부 연령층 최대 16만원)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공연·전시·영화·도서·여행·스포츠 관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지원 규모와 이용 편의가 한층 강화됐

다. 특히, 청소년(13-18세)과 중고령층(60-64세)은 1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최대 16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카드를 발급받아 3만원 이상 사용하고 올해도 자격을 유지하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난 1월에 자동 재충전이 완료됐다. 다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2025년도 사용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등 자동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된 이용자는 읍·면 사무소 또는 온라인을 통해 재충

전 또는 신규 발급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오는 11월 말까지이며, 전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도 확대됐다. 전국 3만5,000여개 가맹점에서 ▲영화관 ▲서점 ▲공연장 ▲여행·숙박 ▲프로스포츠 ▲체육시설 ▲테마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가능하며, 해남군에도 84개의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어 이용할 수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 김 친환경 국제 인증

'ASC-MSC 해조류, CoC 인증' 취득

명품 진도 김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 김 산업'을 위한 국제표준 인증인 'ASC-MSC 해조류, CoC 인증'을 취득했다. ASC는 2010년 세계자연기금(WWF)과 '네덜란드 지속 가능한 무역(IDH)'이 비영리 국제기구로 설립한 양식관리 협회에서 해양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양식업추진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인증 제도이며 MSC는 지속 가능한 자연산 어업을 인증하는 국제표준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책임있게 어획된 수산물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CoC 인증은 ASC-MSC 인증 제품을 가공, 유통,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인증 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인증 마크를 확인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투명하게 관리된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데 이바지하는 가치 소비를 실



진도 물김 수매 현장. <진도군 제공>

현할 수 있다. 특히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윤리적 소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ASC-MSC' 인증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모두 갖춘 소비 선택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이번엔 취득한 김 관련 인증과 함께 2개소 전복에 대한 친환경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하는 등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제 표준 인증을 확대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 김의 정정수산물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세계시장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판로 개척과 국내 판매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도 전국 최대 김 위판고를 달성해 진도군 김 산업이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

인기 만점 '수제 초콜릿' 창업해 볼까?

해남군, 초콜릿 거리 창업자 모집... 예비창업자 최대 5000만원 지원

해남군이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초콜릿 거리 조성의 창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해남군은 해남을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초콜릿 거리 조성을 추진, 현재 5개소의 수제 초콜릿 매장이 문을 열어 성업 중이다. 모집 분야는 두 가지로 초콜릿 판매장을 신규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와 기존 점포에 초콜릿 콘텐츠를 접목하는 복합매장과 사업 참여자이다. 신규 창업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 복합매장과 참여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접수는 오는 27일까지로, 서류와 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신청자는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며,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는 신청자 부담

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인구 유입과 로컬 인재 육성을 중점에 두고 있어, 관외에서 해남군으로 이주한 신청자에게는 3-5점의 가점이 부여되며, 추진단이 운영하는 초콜릿 교육 수료자에게는 가점 5점이 추가로 주어진다. 초콜릿 교육은 현재까지 3기가 진행됐으며, 올해 4기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모집 요강과 신청서 양식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또는 해남원도심 상권활성화 추진단 홈페이지(www.해남상권.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 접수 또는 해남매일시장 2층 상권활성화 추진단 사무실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문의는 전화(070-8648-2272)로 하면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탄소중립 과제 속 해조류 미래 가치 알리기

완도군, 2026 국제해조류박람회 전시연출 최종 보고회

오는 5월 개최 예정인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전시연출에 관한 밑그림이 나왔다.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상항실에서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시연출·회장 운영·이벤트 대응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박람회에는 기후 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의 미래라는 주제로 5월2일부터 7일까지 완도 해변공원과 완도해안치유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 해조류산업의 미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산업형 박람회로 열린다. 용역 보고회에는 ▲전시연출 컨셉트 ▲전시관 등 콘텐츠 구현 ▲박람회장 조성·운영 ▲개막식

및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이 제시됐다. 박람회장에는 해조류 이해관과 주제관, 산업관, 홍보관 등 4개의 전시관이 마련되며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존 완도해조류센터를 해조류이해관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이해관과 주제관에는 '바다의 위기! 바다가 보내는 신호, 기후 리더 해조류'를 테마로 해조류의 가치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해조류 탄소 흡수원에 대해 몰입형 영상과 인터랙티브로 구현할 계획이다. 저탄소 최첨단 정보통신기술(CT)을 활용한 개막식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대나무 바다낚시, 해조류 체험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청소년이 기획 참여하는 '영광 지역축제'

청소년 참여기획단 운영... 개선점·프로그램 등 논의

영광군이 지역 축제와 지역 문화 거점 공간인 영광 문화예술촌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참여기획단을 운영한다. 청소년 참여기획단은 총 2회에 걸쳐 운영되며 청소년이 직접 축제와 문화공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의견 수렴 중심의 참여 프로그램이다. 군은 본격적인 참여기획단 운영에 앞서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장·교감과 면담을 진행하고, 사업 취지 설명과 함께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한 학교 차원의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청소년이 지역 문화와 축제 기획 과정에 참여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다.

1차 모임에서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축제와 문화 공간에 대한 솔직한 인식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2차 모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축제 공간 구성, 참여형 프로그램, 문화예술촌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광군은 청소년 참여기획단 운영과 병행해 지역축제 사전 컨설팅을 전문가에게 의뢰해 축제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 현장 의견과 전문가 분석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축제 및 문화공간 운영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영광=이음삼 기자 2yong3@kwangju.co.kr

영암 청년 공직자 '혁신 주니어보드' 출범

임용 5년 내 30명, 청렴 조직문화 조성·업무 매뉴얼 제작 추진

영암군이 청년 공직자들이 주축이 된 '2026년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제5기를 맞은 혁신 주니어보드는 임용 5년 이내 2030세대 공무원 30명으로 구성된 청년 공직자 모임이다. 이들은 ▲정기회의 ▲역량 강화 워크숍 ▲산배 주니어보드 소통 ▲'2027 영암방문의 해' 홍보 등 청년 공직자 목소리를 바탕으로 혁신 과제를 발

굴, 제안하는 활동에 나서게 된다. 올해 혁신 주니어보드는 청렴 조직문화 조성, 신규 공직자 맞춤형 업무 매뉴얼 제작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청렴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서비스디자인과의 협업으로 현장 체감 문제를 발굴해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맞춤형 업무 매뉴얼은 지속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영암=전병현 기자 jbh@kwangju.co.kr